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 Digital시대에 대비한 大邱廣域市 情報化 推進戰略-

대구광역시장 문희갑

먼저 1997년도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하게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1. 序 說

21세기 디지털 기반의 정보사회를 맞이 하면서 사회 각 부문은 첨단정보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보화 기반으로 조직과 인력관리의 새로운 틀을 짜는 재구조화(Re-structuring)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신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과거의 제도와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려는 노력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결정적 방향타를 잡고 있는 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전략은 중요한 책무임과 동시에 발전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보화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정보화 전략은 이제까지의 거점적 추진방식을 전면적 방식으로 수정하는데서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 추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행정체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체제 내부의 정보화는 물론, 지역산업과 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보화,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보화, 지역문화의 확산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문화부문 정보화,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부문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정보화 등 총체적 측면에서의 정보화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정보화 추진전략은 단순히 행정의 정보화나 지역단위의 정보공유라는 개념을 넘어서 결집된 정보화 역량을 지역의 총체적 발전전략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중인 새로운 정보화 기반의 발전전략은 공무원은 물론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발견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하려는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체제 내부의 정보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는 '97년 3월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정보화관련 박사급 전문직 공무원, 실무부서의 관련 보직자, 각 대학교 자문 교수 등으로 「대구광역시 시정정보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시정정보화추진기획단은 기존의 시정을 정보화 기반으로 재구조화(Restructuring)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정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각급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수범기관을 방문하여 정보화 성패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수차에 걸친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조직개편, 시스템 도입과 확장 등을 포함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대구광역시 시정정보화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 市政 情報化 推進 現況

### 가. 시정정보화 확대

시정관련 정보의 유통속도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96년도에 시정전산망(LAN)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산하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산하기관간의 정보·자료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을 '94년 9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9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입·출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관리, 보존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정보력 강화를 위하여 우선 3개 자치구(중구, 동구, 서구)에 전산과(실)를 설치하는 한편, 주전산기Ⅲ를 도입하여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결재 등 Groupware 도입을 위하여 사무행정 환경변화에 필요한 정보기술 교육강화, 1인 1PC 체제의 조기 정착 등 행정정보화의 기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나. 전산처리의 활성화

인사·급여통합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97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입출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산자원의 활용과 책임행정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공급4사와 합동으로 예산·회계 통합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세 관리의 효율화 등 지방세업무의 전산화 범위를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행정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및 DATA코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 보존문서의 광FILE화

대구광역시시는 '92년 11월에 보존문서의 마모, 부식 등으로 인한 장기보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문서의 열람, 검색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광파일을 추진하였습니다. '94년 1월부터 보존문서를 입력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3,247천건이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등 보존문서에 대한 과학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행정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행정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97년도에는 행정전산망 운영과 관련하여 자동차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며, 주민관리 및 부동산관리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

영·관리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 및 신뢰성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행정전산망 및 MOHA-NET(내무부, 시도간 통신망)의 전용회선을 디지털 회선으로 고속화하여 회선사용료 절감과 각종 정보시스템(긴급구조시스템, 방재관리업무 전산망 등)의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3. 向後 市政情報化 推進을 위한 基本構想

급변하는 정보화에 걸맞게 관련 조직의 개편, 컴퓨터의 확대 보급과 통신망의 정비, 각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하여 시정정보 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 병행하여 인적 측면에서 정보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정보마인드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시정정보관리체제를 혁신하고 이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디지털 시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가. 시정 정보화 추진방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는 정보화 추진전략을 기존의 거점적 추진전략에서 전면적 추진전략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개념의 도입 등 정보통신 관련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여 정보화 추진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전산화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각종 네트워크를 시 종합정보통신망으로 통합시켜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 동시에 정보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정보화관련 특강과 각종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정보화관련 교육내용 및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전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단기 추진계획을 4단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정보화 추진계획에서는 시정정보화 추진현황 조사와 각종 자료수집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전략을 수립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2단계 계획은 '98년 6월까지 1인 1PC체제 확보 및 시정업무용 LAN 재구축과 인터넷 활용환경 정비, 공무원의 정보마인드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 계획은 '98년 12월까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문서중심 시정을 디지털 기반의 전자시정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마지막 제4단계 계획에서는 '99년 12월까지 구청 및 사업소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의 총체적 정보화 역량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 「Cyber City Hall」 구축

많은 시민들이 “이제 대구시청은 내 컴퓨터안에 있다. 언제나 필요하면 통신망을 통하여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Cyber City Hall」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향후 시정개혁의 중요방향으로서 멀티미디어 기반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시정 구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금년 2월 27일 개통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향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소개와 지역 관광안내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많이 활용되는 조례와 규칙 등 지방자치법규(약 3,500페이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Data Base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향후 특히 각 실·국별 중점시책을 상세히 제공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상의 자료입력과 관리를 현재 집중관리체계에서 분산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각 실·국별로 주요추진 시책을 직접 입력·관리하게 함으로써 자료내용의 신속성, 정확성, 구체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다양한 주제의 시민토론광장 개설을 통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 인터넷 계정을 할당할 계획이며 현재 활동중인 ‘대구 시청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 기술축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 청내 통신망(LAN) 재구축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 수요의 증가와 뉴미디어 수용에 대비, 내부 통신회선을 통합하여 시 종합정보통신망 구축하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유통속도 향상을 위해 시정 업무 전반을 LAN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98년 상반기까지 시정업무 및 전자결재용 LAN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여 지금의 회선 부족문제와 각 사무실에 인터넷 활용에 따른 보안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구축된 LAN은 인터넷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부서 고속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 시정업무용 LAN으로도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및 현재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아날로그 및 중 저속 디지털회선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하는 한편, 정보통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예비회선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우리시는 정보의 유통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체제의 확립하고, 각종 서식의 표준화로 행정사무를 간소화 시키며, 연간 70여만건에 이르는 행정문서의 신속한 처리와 문서처리를 위한 행정력 소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8월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9월에 “대구광역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시정정보화추진기획단에서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 기능 테스트 중이며, 조만간 우리시에 도입할 소프트웨어를 종합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대구광역시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98년 6월까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활용, '98년 12월까지 전자결재를 도입 실시할 예정이고, '99년 1월부터는 전면적인 『대구광역시 Digital 시정시대』를 개막할 계획입니다.

#### 마. 지리정보시스템(GIS) 확대 구축

대구광역시는 현재에 도로대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아직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시정전반에 활용하기에는 종합성, 일관성 측면에서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정보화추진기획단에서는 이를 정보화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도시 및 조경계획, 환경관리, 종합방재, 교통관리 등 시정전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분야별 지리정보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4. 地域情報化事業 主要內容

### 가.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설립

대구광역시는 지역정보화 수준을 혁신적으로 앞당기고 지역의 정보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주)대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에 주식회사 형태의 대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10억원을 출자하였고 '96년 10월에 실시된 주식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제3섹터 방식의 자본공모라는 예외적 조건하에서도 일반청약 부문에서 2:1의 청약율을 보이는 등, 정보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리에 출범시켰습니다.

(주)대구종합정보센터는 '97년 7월에 창립총회 개최와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에서의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사업,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사업, 개발용역 수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8월부터 본격적인 전문인력 확보하여 지역의 정보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나. 패션·의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사이버공간 구축

대구광역시는 고부가치의 선진산업인 패션/의류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초고속전산망 원격시범사업 과제 공모에 참여하 선정된 프로젝트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97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12억원으로 '97년 12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섬유관련 업체에 대하여 상세한 국내외의 섬유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사이버 패션쇼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섬유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정보화의 모델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 어린이를 위한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 및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각종 어린이 생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원으로 '97년 10월부터 추진하여 '98년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어린이의 출생시부터 전 성장과정에서 부딪치는 질병·교육, 부모의 고민 등 50여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어린이 관련 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 및 자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의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서비스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5. 맺음말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이제 지방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전략은 물론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도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합니다.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겪었던 문제점들이 정보화과정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전략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식을 토대로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와 산업, 지역문화와 시민복지 부문을 정보화 기반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정보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